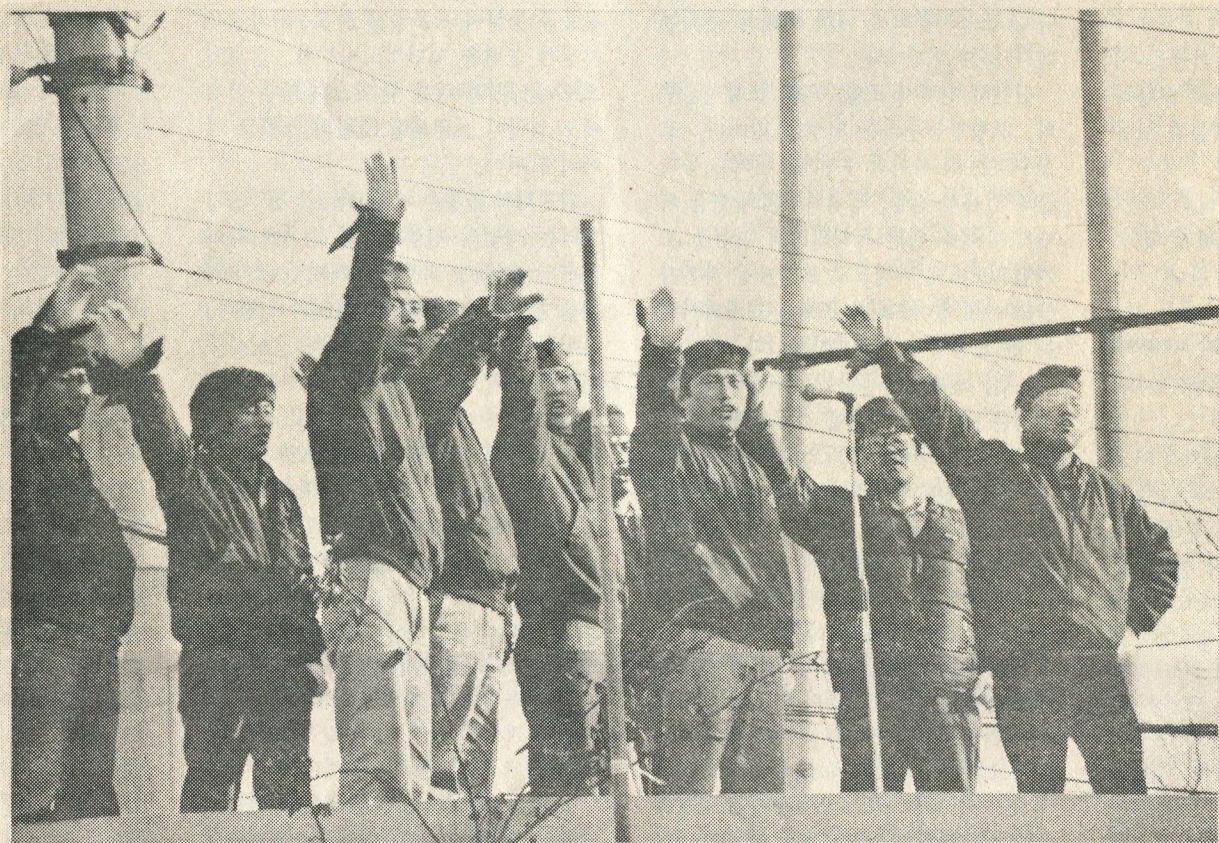




안포연신문

제 2 호 1989. 4. 26

발행처 : 안양 문화운동연합
주 소 : 안양시 안양동 674-9
(☎48-3844)



— 우리들의 나라 —

— 김은영 : 한국수미다주식회사 —

우리가 비록
달빛 아래 떠나가는 철새일지라도
우리에겐 기어이
함께 가 닿아야 할 그리운 나라가 있고
우리가 비록
철새를 떠나 보낸 빈 들일지라도
우리에겐 결코 묻어둘 수 없는
한가닥 기다림의 불씨가 있다.
우리가 이 땅, 이 들판의 여린 풀잎으로 자라
살며 아파하며 숨죽여 피어나는
이 땅의 서러운 풀꽃일지라도
우리에겐 결코 꺼질 수 없는
희망의 불꽃, 그리움의 모닥불이 있다.

밤바람이 거세고
떨려오는 일새처럼
우리의 삶이 더욱 쓰라릴지라도
우리에겐 언제나
서로의 가슴에 가슴을, 세차게 비비며
서로의 뿌리에 뿌리를 단단히 묶고
사랑의 노래 그리움의 노래를 다함께 합창하는
뜨거운 가슴, 뜨거운 불길이 있어
이렇듯 우리는 오늘도
하나의 별송이가 되고
활활 타오르는 불송이 되어
비로소 하나가 되어
눈물어려 빛나는 그리운 나라
우리들의 나라로 달려간다.

노동자를 노동문화 발전의 주역으로!

— 임투시기의 올바른 문화 실천에 대하여 —

● 노동문화 상담실 ●

89년 임투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일천만 노동형제들은 투쟁속에서 적들의 본질을 똑똑히 인식하고 강철같이 단련되어 투쟁의 대열에 속속 동참하고 있다. 임투의 장은 실로 노동자의 최고 교육의 장이며 단결의 의미를 되새기는 실천의 장이다.

이러한 임투시기에 노급의 사상을 지도·지원하는 임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문예운동의 여러 동지들과 노동조합의 문화담당 동지들에게

1. 이번 임투시기의 사업방식
2. 임투 문화실천의 조직체계 문제에 대하여 몇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1. 사업방식에 대하여

1. 노동자를 문화실천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

노동자의 문화는 자발성과 창의적 사고에 기초한 살아 숨쉬는 문화이다. 노동자는 스스로 움직이고 실천하는 속에서 자신의 문화를 창조한다. 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조합의 문화담당실무자가 스스로 문화실천내용을 계획, 실천, 점검, 평가하도록 하고 혹 오류가 생긴다면 오류에 연연해 하지 말고 문제의 본질을 헤아려 올바르게 실천하도록 지도한다면 그 실무자는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주체적으로 사업하여 나갈 것이다. 흔히 외부 문화활동가들과 파업지도부에서 파업문화실무를 조합내의 문화역량이 일천하다는 가정하에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모두 챙기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업이 지속되다보면 조합원 개개인의 역량은 그대로이고 집행부만 바쁘게 돌아가고 결국 파업이 끝난뒤에는 조합집행부의 몇몇 역량만 강화되어버리고 마는 예가 종종 있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노동형제들의 주체적 참여를 통한 창조적 노동문화 건설이다. 인간을 믿고 개개인의 발전가능성을 믿는 것이 올바른 노급의 사상에 근거한 사업작풍이다. 외부에서 지원하는 노동문화활동가와 조합의 문화담당실무자들은 이와같이 노동자대중을 문화창조의 주체로 놓는 사업작풍을 이번 임투시기에 적극적으로 체화시켜야 한다.

2. 노동조합을 강화하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문화의 발전이 노동조합의 강화로 나타나야 한다. 문화활동가들은 자신의 전문적 문예실천능력을 노동조합의 투쟁지침과 결합시키고 개개 노동자들의 문화실천력을 극대화 시키는 방법으로 노동운동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노조의 지도력과 긴밀히 연결된 문예활동인자가 자신의 전문성을 기초로 하여 실천과정에서 이해와 설득의 방식으로 노동대중과 목적의식적으로 결합하게 되면 노동대중은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실천을 통하여 정치의식화되며 이는 노급의 역사적 진출에 필연적으로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노조를 강화시키는 방도로써의 지속적인 목적의식적 문화실천은 노급의 정치의식을 높여나가며 이는 노동운동의 강화로 이어져 결국, 이것이 민민운세력의 조직화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혹자는 이를 두고 조합주의적 사고의 편향이 아니냐고 문제제기를 할 것이다 조합을 중심에 놓고 강화시킨다고 해서 이를 조합주의적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조합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변증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노동자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오는 소치이다.

간단히 말해서 조합주의란 조합지상주의, 조합만능주의를 일컫는 말이다 조합주의는 이 사회의 주인으로써의 노동계급의 역사적 진출, 정치의식의 발전을 외면하고 이를 위한 목적의식적 실천을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노동자를 자본가들의 손에 떨어뜨리고 조합을 개량화시키는 반 노동자적인 속류사상이다.

또한, 문화실천을 가두화시키려는 경향성은 노동자의 문화를 건설한다면서 노동조합의 문화역량을 밖으로 빼내어 노동자 문화지원단체를 건설하여 외부지원을 통해 노조를 강화하고 노급의 문화를 생산·발전시킨다는 발상은 노급의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지극히 관념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다.

노동자는 기본적으로 외부적 지원을 통하여 변화·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터전이며 자본가와의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회사안에서 자주적 대중조직인 노동조합을 스스로 투쟁으로 지켜나가면서 변화·발전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노급의 문화도 노조 문화담당 실무자들이 노조활동을 중심으로 진행하여야만 보다 주체적이고 풍부하게 발전한다. 초기적 의식수준을 가진 노동자들의 수많은 문예창작 내용이 바로 눈앞의 적인 사장과 자신을 대비시키면서 계급적 분노를 각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조의 노동문화담당자는 자신의 실천의 장인 노조 안에서 주체적인 사업을 하고 외부의 노동지원을 자기임무로 하는 문예활동가는 노조지도부의 통제하에 노조의 노동문화담당자들을 긴밀히 지원함으로써 자신의 실천의 장인 노조 안에서 주체적인 사업을 하고 외부의 노동지원을 자기임무로 하는 문예활동가는 노조지도부의 통제하에 노조의 노동문화담당자들을 긴밀히 지원함으로써 자신의 전문성을 내용적으로 관찰할 때 노동자의 주체역량을 키우고 노조를 강화시켜 노동운동은 민족민주운동의 주체로서의 자리매김을 보다 확실히 할 수 있을 것이다.

2. 임투시기 문화실천의 조직 문제에 대하여

임투시기에 조합강화를 통한 민민운세력의 조직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직실천체계를 우리는 문화실천위원회(안양지역에서는 혹은 문화선전대로 칭하기도 한다. 명칭의 차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임투대책위원회의 체계안에 이 위원회가 위치되지 않기 때문에 문화실천위원회라는 명칭이 훨씬 부드러울 듯하다.)라고 하여 몇몇 노조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다. 문화실천위원회는 조합의 선전, 문화, 홍보, 체육, 부분적으로 생의부의 부서인자로서 구성된다. 위원회는 임투기간

중 조합내에 설치·운영되며 각 인자는 문화활동 전반을 총괄하고 투쟁의 앞장에서 투쟁을 이끌어 나간다. 이 위원회에는 조합내의 총 문화활동역량이 집결됨으로써 임투의 제반 사업을 조직적으로, 책임성있게 진행시켜 나갈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노조의 문화활동인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집단적, 자주적, 창의적으로 발양시켜 나갈 수 있으며 임투 이후에도 역량이 보존되어 조합의 강화로 이어지게 된다.

위원회의 활동은 계획, 실천, 점검, 평가라는 사업의 진행원칙적 방식에 따라 실천되어야하고 외부의 문화지원도 이 체계를 통하여 통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위원회의 구체적 활동임무는 ▲하루 일정을 기획, 조정하고 ▲집행부의 투쟁지침에 따라 매 시기마다 필요로 하는 집회를 구축하여 진행하고 ▲조별 문화활동을 지도 ▲소식지, 전단 등의 홍보매체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홍보물의 배포망을 구축하며 ▲프로그램 진행일지를 작성하고 사진 등 각종자료를 점검하는 등의 사업을 한다. 안양지역에도 금성전선, 삼덕노조 등에서 이 체계가 운용되고 있으나 아직 초기적 형태이고 이러한 위원회가 파업에 돌입 안한 많은 회사에서부터 먼저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하나, 지역차원의 중요한 문화실천체계인 지역문선대는 문화실천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강화된 각 조합역량을 바탕으로 건설된다. 요즘 여러 지역에서 지역문화선전대가 꾸려지고 있으나 조합의 역량을 바탕으로 하지 못한 채 건설되는 예가 많다. 이럴 경우 조합의 문화적 역량이 약기때문에 참여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 자신의 노조실천과 거리가 있음으로 해서 당위적 차원의 연대실천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 지역문선대의 기초가 되는 조합내의 문화실천위원회의 역량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지역문선대는 실로 상상누각일 뿐이다.

우리지역에서도 현재 경기남부투본 안양지구 상황실안에 각 조합 문화부장의 모임인 문화체육부가 활동하고 있고 그 지도하에 연합풍물팀, 연합합창팀이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결합의 정도가 약하고 초기적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 이

지역문선대가 발전하면 문화적 역량이 없는 타 노조를 지원하고 연대실천을 책임 있게 수행할 것이다. 그리하여 지역문선대는 지역의 노동자문화활동을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주체로 발전하는 자기전망을 가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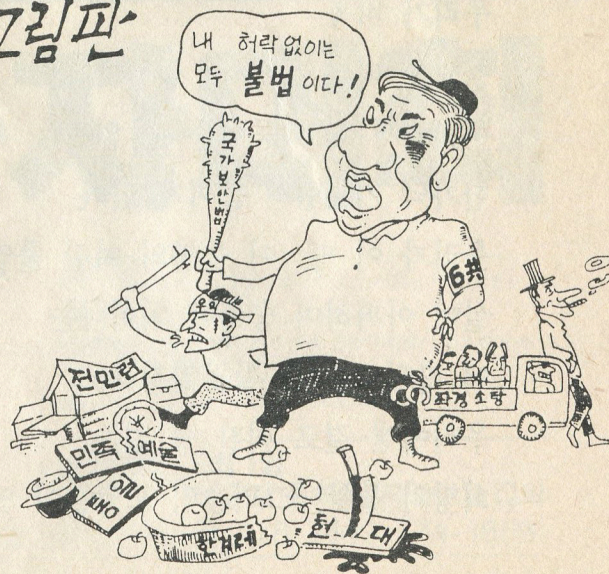
이외에 외곽노동지원 문화단체들의 협의체인 임투문화사업지원단이 있다. 이는 지역안에 고립분산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문화지원단체들의 실천을 한데 모아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하기위하여 꼭 필요한 체계이다. 지난 실천의 과정에서 이러한 체계가 없음으로 해서 개별노조의 지원이 중첩되기도 하고 지도내용의 혼선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이 지원단을 건설함으로써 우리는 통일적인 문화교육체계를 꾸려낼 수 있고 각 노조의 문화실천위원회와 통일적인 지원창구가 마련되어 보다 신속·효과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우리지역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는 임투문화사업지원단의 그 동안의 활동성과(교육, 지침서 제작, 기능지원, 연대지원, 연대집회지원)를 발전시켜 더욱 단단한 연대의 틀로 강화할 때에 투본, 문화실천위원회, 지역문선대등의 활동이 보다 활발히 내용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문화지원단의 사업이 올바르게 수행되면 노조의 강화와 문화활동가의 전문성 강화가 서로 변증법적으로 통일될 것이며 각 문화활동가들의 역량이 보다 크게 상승·발전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임투시기를 맞이한 노동문화활동가는 노동자를 역사발전의 주체로, 노동문화발전의 주역으로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문화활동가는 사고의 중심을 노동조합의 강화와 이에 기초한 연대의 강화에 사고의 중심을 놓고 조합의 문화역량과 자신의 전문성을 통일시켜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조합외부의 문예활동가가 공연물 등을 통해서 일회적으로 조합원들과 만나려 할 때 문예실천이 조직적 실천이 아닌 문화기능적 실천으로 떨어질 우려가 많다. 우리는 보다 노동운동의 조직적 관점에서 전체 민민운세력의 주체설정이라는 대자적 관점에서 이번 임투의 문화실천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인문연 그림판



기획

보고의 원리와 올바른 보고방법

편집부

1) 보고의 원리

1. 민집제의 철저한 관철의 과정으로의 보고의 원리

민집제란 수렴은 민주적으로 하고 집행은 중앙 집중으로 한다는 식의 평면적이고 기계적인 것이 아닙니다. 민집제는 각 단위 단위에서의 민주적 방식과 집중적 방식이 통일적으로 이루어지는 입체적이고 활력적인 사업 방식입니다. 따라서 보고의 원리에서 중요한 것은 보고의 운영 과정에 있어서 보고와 취합, 즉 집중의 방식이 통일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단위의 보고서로 제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토론의 활성화 및 단위의 상대적 완결성을 보장하는 과정으로서의 보고의 원리

구체적 보고는 필연적으로 토론의 활성화를 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토론의 활성화를 토대로 각 단위의 의견이 집중되고, 보고, 실천 되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각 단위의 역량은 높아지고 단위의 자주성이 고양되어 자체의 사업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3. 조직원 상호간의 친화력 및 신뢰 담보를 위한 보고의 원리

구체적 보고를 위해서는 구체적 실천이 필요하며 이 구체적인 실천 과정을 통하여 성원 상호간의 친화력은 담보되어질 것이며 동시에 신뢰는 형성되는 것입니다. 같이 계획하고 서로의 견해가 관철되는 가운데에서 함께 실천을 하는 가운데 동지적 신뢰는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4. 공개제의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보고의 원리

대중 조직의 사업 방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개제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공개 조직의 사업은 당연히 공개적이어야 하며 이럴 때에만 조직 성원은 자신이 속해져 있는 조직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이해 함으로서 조직의 주체로서의 위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조직 성원의 자주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사업 방식인 것입니다.

2) 보고의 의의

가. 개인에게 있어서나 조직에 있어서나 창조성을 적극 발양시켜 주는 사업 방식입니다.

자기 활동의 보고는 단순히 수행한 실천의 기계적 보고는 아닙니다. “나는 이러 이러한 일을 했다”는 식의 활동 보고는 보고의 올바른 원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활동의 보고는 단순한 실천의 보고가 아니라 차후의 실천을 창조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준비 계획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고서는 과거 지향적인 평가서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아니되며 미래 지향적인 발전적인 대안 모색의 보고서로서의 기능을 올바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고서가 작성되어지고

활동 평가가 이루어질 때에만 하나 하나의 실천이 소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역량의 축적으로 연결되어 자기 자신 및 조직의 강화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실천을 통한 창조적인 실천의 준비는 올바른 보고서의 작성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나. 주체성을 적극 발양시켜주는 자주적 사업 방식입니다.

활동 보고의 창조적 원리는 사업의 실천적이고 발전적인 평가를 통하여 지난 실천의 문제점의 극복을 위한 대안의 모색을 스스로 찾아내게하는 인자의 주체성을 발양시켜주는 자주적인 사업 방식입니다. 한 사람의 역량있는 활동 인자를 담보한다는 것은 저절로,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자 스스로 자기의 실천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부단한 노력 속에서, 조직의 계속적인 관심과 격려, 실천적 평가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다. 보고의 원리는 민주적인 사업 방식을 대오 내에 적극 담보함으로 해서 조직 대오를 활성화 시켜냅니다

조직 대오에서의 각 부서 및 개개인의 활동 보고는 창조적 고민을 통한 자신의 의견을 조직 대오 내에 제기함으로 해서 토론의 활성화를 보장하여 자연스럽게 대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적 장치인 것입니다. 토론의 활성화나 민주적인 의견의 수렴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회의를 많이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보고의 올바른 집행을 통해 조직 대오 내에 민주적인 사업 기풍을 적극 진작시켜야 합니다

3) 보고의 목적

보고의 목적은 조직의 통일성의 담보를 통하여 조직 대오를 탄탄히 하는 것과 올바른 상황평가를 통하여 올바른 실천 방도를 내오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보고가 제대로 수행되어지지 않을 때에는 조직의 통일성은 저해되며 각 대오는 분열되어 강고한 투쟁을 내올 수 없게 되며, 상황평가를 그릇되게 하여 올바른 사업 계획을 내올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목적을 담보하기 위해 수행되는 보고의 원리는 조직원 스스로가 조직의 주인이라는 자각하에 스스로 조직 대오에의 복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행위인 것입니다.

가. 조직의 힘은 통일성에서 나옵니다.

통일성은 각자의 실천 속에서 과정 및 성과물을 공유하며 비판과 자기 비판을 통해 담보되며 이 비판과 자기 비판의 근거가 되는 것은 보고의 원리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고의 원리는 상호 보고의 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조직원 개개인만이 조직의 지도부에 활동의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상부도 각 조직 단위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상호 보고를 통해서만 조직의 통일성은 나오는 것이며 바로 이것이 보고 원리의 정수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사업을 해 나갈 때에는 전 조직원이 왜 그 사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여야 합니다. 이럴 때에만 조직은 하나의 통일된 사고 속에서 일치된 실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 보고는 조직의 주체 역량 즉 조직의 준비 정도에 맞는 사업계획을 내오기 위한 사업방식입니다.

조직 지도부가 사업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조직의 준비 정도와 개관적 상황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 계획을 세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계획은 그럴듯하게 세웠지만 집행이 되지않아 조직내부 지도부에 대한 불신이 쌓일 것이며 이를 통해 당연히 조직은 분열될 것입니다. 혹은 계획이 서고 그대로 집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계획 자체가 객관적 상황에 맞지 않는, 책상머리에 앉아 세운 계획처럼 되어 조직의 강화 내지는 운동에의 올바른 복무는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올바르게 충실한 보고는 실천을 담보하는 첩경이며 주·객관적 상황에 맞는 적절한 사업 계획 및 방침을 내오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조직원이 보고를 충실히 하지 않는다면 지도부의 판단이나 조직의 판단에 근거를 마련해 주지 못함으로해서 조직의 잘못된 판단을 초래하게 하여 조직 대오의 약화에 일조를 함은 물론 자기 자신도 잘못된 판단에 복종하게 되어 자신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4) 보고서의 작성 방법

가. 원칙

가. 사업의 전체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고서의 작성은 지난 실천의 과정을 정리함으로 인해 차후의 실천에 있어서 올바른 내용을 효율적으로 담보해 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성은 사업의 기획 및 목적, 진행 과정, 진행 과정상에서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문제에 대한 평가, 구체적 대안 등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식으로 쓴다든지 혹은 해보니까 이런 것이 문제더라 하는 식으로 작성한다면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기 위한 새로운 노력을 다시 기울여야 하는 소비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점점이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후자의 경우는 문제를 알아볼 수는 있어도 왜 그러한 문제가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성을 갖지 못하게 되어 처음부터 다시 사업 과정을 점검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갖지 못하게되는 경우는 올바른 대안을 찾아내지 못하게 되어 차후의 실천을 올바르게 담보해 낼 수 없게 됩니다

나. 구체적 실천 과정 속에서 본질적 문제에 대한 제기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물의 실천의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실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원인과 결과를 찾아내어 차후의 실천에 있어서의 지표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회원의 자주적 대중 조직에서의 소모임 사업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소모임 사업을 담당한 인자가 소모임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이러저러해서 문제다, 소모임의 팀장이 어떡해서 문제다 라는 식으로 나타난 현상만을 가지고 보고서를 쓴다면 그러한 문제는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소모임 운영이 잘 안되는 경우의 제기된 문제의 사업 평가 보고서는 왜 소모임 운영이 잘 안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제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근본적 배경, 즉 조직 지도부인 사무국의 소모임에 대한 운영 방침의 문제는 없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소모임의 지도 인자는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소모임 내부의 갈등은 무엇인지, 문제에 대한 소모임 스스로의 주체적인 해결 방도는 무엇이며 어떻게 기술적으로 도울 것인지에 대해 정리, 보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만 하나의 일이 조직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어 지면서 문제의 해결을 통해 조직의 역량은 강화되어지고 조직이 소모임에 대한 올바른 사업 방도(소모임 대중의 자주성을 발양시키는 방도)를 내용으로 해서 소모임 역시 강화되는 것이고 차후의 실천에서 똑같은 오류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막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 보고서 틀의 예

- 가. 사업의 목표
- 나. 계획
- 다. 진행 과정
- 라. 평가—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 마. 대안—부정적 결과에 대한 근본적 원인 및 구체적 대안
- 바. 총정리

5) 조직 지도부의 조직 대오에 대한 보고

이는 보고서의 취합 및 정리의 과정으로 각 부분의 보고서를 정리하여 이에 대한 총평을 통하여 조직 대오 내의 의견 수렴 구조를 활성화시켜 조직 대오를 강화시키고 새로운 사업을 내오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 과정은 조직 사업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되는 필수적인 과정으로 조직 지도부의 중요한 임무인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조직 성원은 자신의 의견이 대오 내에 확실히 수렴되는 것을 보며 조직의 주인으로서의 자신을 발견하게 되며, 자신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경우는 왜 안되었는지를 명확히 이해하게 되어 자신의 견해를 조정하게 되어 대오의 통일성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직 지도부는 이 과정이 조직 강화의 첩경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조직 대오에 보고서를 요구만 하지 말고 대오에 대한 보고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노동현장에서 열리는 판화전

● 우리들의 삶과노동 ●

노동자의 삶과 정서를 표현한 그림전시회가 파업농성중인 노동현장 속에서 열렸다. 지난 4월 6일~8일 사이에 현재 파업 투쟁중인 금성전선 안양공장에서는 이 회사 노동조합의 초청으로 경인경수지역 그림패들의 노동현장 순회미술전 '노동의 햇볕' 전시회가 열렸다.

그리고 4월 10일에는 장기간의 파업농성투쟁을 승리로 이끈 삼덕제지승리보고대회장에서 전시되었고 이어서 휴업철회 투쟁중인 유일산업에서 전시되는 등 안양 지역 노동현장을 순회하며 노동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으며 잇달아 열리고 있다.

수원그림패 '나눔', 안양 '우리그림', 인천그림패 '갯꽃', 부천의 '흙손'과 '햇살', 서울 여성미술연구회, 그림패 '활화산' 그리고 본연합의 미술분과등 8개단체가 참여하는 경인경수지역 민중미술 공동 실천위원회가 제작한 채색판화작품 45점이 전시됐다.

전문가들의 작품과 노동자들의 작품이

전체를 이루고 있으며 노동자의 판화작품은 안양, 수원, 구로지역등에서 실시한 노동미술학교에서 나온 작품들이다.

노동현장 순회미술전 '노동의 햇볕'은 노동자의 입장, 정서에 맞는 그림의 내용으로 노동현장, 투쟁현장에 활력넘치고 풍부한 분위기를 만들어 내어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지를 고양시키며 전체의 집단적단결과 투쟁력으로 발전시킨다. 또한 친근감 있게 표현된 판화, 만화등의 작품은 노동자들에게 미술창작의 계기를 갖게하여 생활과 조직과 투쟁에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게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한다.

안양지역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각 노동현장에서 순회전시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번 전시가 단지 민중미술인들의 작품을 단순히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노동자 자신의 건강한 새로운 미술세계를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본 연합 미술분과는 말했다.

단 하루라도 품을 팔지 않으면 당장에 먹고 살기가 아득해지는 날품팔이 노동자의 처마밑에도, 악덕재벌의 대명사 정주영의 식칼에 손에도, 그 식칼에 맞아 병원에 입원해 있는 현대노동형제들의 채아물지않은 상처 위에도 봄은 그렇게 찾아왔다. 사월의 봄은 잔인하게 찾아왔다. 가슴즈럽기까지 한 이 봄은 새순을 움트고 파릇파릇 풀포기의 봄단장으로 겨울 내내 파업투쟁을 하느라 지쳐있던 노동형제들에게 찾아들었다.

방에도, 어김없이 주어지는 봄은 우리노동형제들의 봄은 아니다. 우리 노동형제들의 봄은 "투쟁의 봄"이다. 서슬퍼런 칼날을 꺾어 버리는 노동해방·인간해방·민족해방의 봄이다. 그것은 결코 계절의 순리대로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찾아드는 봄, 그래서 기다리는 봄이 아니라 싸워서 쟁취하는 봄이어야만 하고, 사회구조적인 착취와 억압을 깨부수는 "재창조의 봄, 변혁의 봄"이어야만 한다. 노동형제들은 기나긴 겨울 낮과 밤을 헛되

모퉁이 글



품을 팔지 못해, 팔아도 밀리는 방세, 어린 자식들 제대로 먹이고, 입히지 못하는 이 땅에 봄은 찾아왔다.

"비오면 비투사, 눈오면 눈투사"가 되어 "죽을 수는 있어도 질 수는 없다."라고 당당하고 넉넉한 굳센 의지와 박력의 이 땅의 노동형제들에게 봄은 "투쟁의 봄"이어야만 한다. 이 땅의 풍요로움의 생산자, 주인으로서의 노동형제들에게도 봄은 있다. 분명 있다. 다만,

정주영의 피땀 식칼에, 전두환·이순자의 대머리·턱주갸리에도, 노태우의 안

이 보내지 않았다. 정주영의 피비린내나는 식칼의 테러 속에서도, 광주학살·5공비리의 주역 노태우 정권의 악랄하고 무자비한 최루탄·백골단의 공세 속에서도 '노동자의 봄'을 쟁취하기 위해 꽃망울 같은 눈빛을 결코 잃지 않았다. 현대중공업, 풍산금속, 서울지하철등 전국의 노동형제들이 활화산같이 살아 펄펄 치솟는 불길로 하나되어 싸웠다.

전국의 노동형제들이여! 이제 진짜 노동자의 봄이 오면 정주영의 식칼 쫓아야 단숨에 꺾어버리지 않겠는가.



"노동현장 가족" 88년작
안양 우리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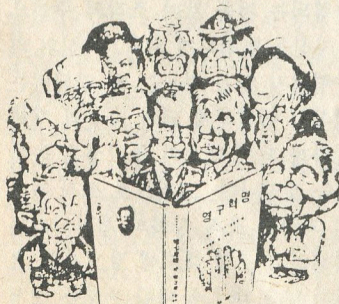
"순애" 88년작
수원 우리문화교실



노동의 햇볕전

영구혁명 — 및 평가와 전망 —

새문안교회 기 성 일 진 이



민족통일과 민중권력

— 국제주의와 관점 —

최인복 지음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 입문

크리스 하먼 지음 배규식 옮김 값 2,000원

마르크스주의의 기초원리를 노동자의 관점과 국제주의의 관점에서 매우 쉽게 설명한 책. 현대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마르크스주의의 원리에 입각하여 간결하고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우리그림

시민미술강좌에 참여 하려면

신바람나는 그림을 그려 봅시다!
정말로 들에 핀 꽃한송이를 보고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사람이
정의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고
이같은 아름다운 정신들은 우리의 가슴속에
진한 감동으로 남아 생명력을 갖습니다.

시민미술강좌는 우리의 삶속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정신들을 만들어 나가고
그것을 형상으로 표현할까를 배웁니다.
또한 각 개인의 창작능력을 개발하고
그속에서 나온 작품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합니다.
함께 그려 봅시다!

- 참가자격 : 시민, 학생, 노동자, 교사, 주부등
그림을 그리고 싶은 분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학교 미술시간에 그림을 그리고 이제까지 안그려 본 분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수강기간 : 89년 4월 10일~6월 31일. 주1회
(7월 8일 전시회까지)
주1회 정기수강일 외에도 향시 나오셔서
그릴 수 있습니다.
- 수강인원 : 60명 (선착순)
- 수 강 료 : 2만5천원 (분납가능)
- 접수방법 전화, 직접방문
(듣고 싶은 교실로 접수하셔도 좋고
입학식날 결정하셔도 됩니다.)
- 접수기간 : 89년 3월 24일~4월 10일까지
- 접 수 처 : 우리그림사무실 (0343-44-8942)
- 위 치 :

서울

만안국교버스정류장

원색건물3층 경기은행

안양시내

공연평

제 8 회 안양민요의 날



지난 3월 18일 삼덕제지 파업현장에서 제8회 안양민요의 날(이하 '민날')이 안양민요연구회(이하 '민연') 회원, 삼덕제지 노조원 및 가족들, 타회사 노조원등 약 7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의 주최인 민연은 2개월에 1회씩 열리는 민날을 통해 지역대중들과의 끊임없는 만남과 지역대중들에게 건강한 참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노력해왔다. 그러나 대중교육의 장으로서 민족문화의 창달과 민요부흥운동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정하고, 이제껏 진행된 민날이 초기엔 대중성에 강조점을 두고 그저 풍물로만 벌인 대보름판이나, 지도성에 강조점을 두어 대중조직으로서의 위상보다 높은 내용으로 꾸렸던 4회 "그리움 가는 길 어디메쯤" 등의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대중성과 지도성이 혼재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혼재와 자체 반성으로 방향성을 거듭한 결과 구체적인 대중의 삶속에서 벌어지는 마당판이 바로 민날이라는 새로운 설정아래 당시 39일째의 파업을 맞이하고 있던 삼덕제지 농성현장에서 그 첫시도를 꾀하게 된 것이 바로 이번 8회 민날 "노동자는 파업현장에서"였다.

민연은 88년 7월에 5회 민날 "시험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를 통해 구체적인 대상(청소년) 설정과 행사의 주제(당시 회원과 2기 풍물강습생), 관객동원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대중결합력을 보여주어 지역에서의 문화행사중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던 사례가 있었다. 이번 민날의 경우 민연이 작년 그 성격을 명확히 했던 5회 민날에서 거둔 결과물을 자기경험으로 축적시켜 계속 열었던 민날에 적용시키고 발전시키지 못하다가 8회에 비로소 다시 그 시도를 하여 제 궤도를 찾았다는 발전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8회 민날의 기획의도와 목적은, 삼덕제지 파업현장에서 진행되는 바 명확히 투쟁지원이라는 전체하에 조합원의 단결력 강화와 민날이 갖는 대중성으로 조합원의 가족들을 전연해내며, 오랜 파업으로 단일화된 프로그램에 다른 전형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민연 자체의 목적으로는 연극, 춤, 노래, 풍물이 총체적으로 수용되는 민날을 창작해냄으로써 자체 문예실천력을 강화한다는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기획의도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진행된 프로그램은,

1부 : 가족노래한마당에서 삼덕 노조원의 가족들과 관객들의 폭넓은 참여 순서를 시작으로,

2부 : 민연의 명예회장인 신경림씨의 인사말과 열림판굿, 창작민요발표, 삼덕제지 노조 합창단의 합창이 있었으며,

3부 : 연극, 춤, 노래, 풍물이 총동원된 마당극이 진행되고,

4부 : 약 200여명이 한데 어우러진 대동놀이로 장장 6시간에 걸친 프로그램이었다.

평가는 부별평가를 중심으로 하고, 부별평가를 토대로 이번 민날을 통해 배운 점과 문화활동가가 극복해야 할 자제 등을 내용으로 서술하려 한다. 그러나 본 평가는 평론의 입장보다는 관객의 입장에서 공연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였음을 밝혀둔다.

부별평가

1부는 삼덕노조원의 가족들과 타노조원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목적으로 마련한 순서였다. 실제로 1부에선 지루하리만치 많은 가족과 타노조원들의 노래자랑이 있었는데 참여의 양적 확대라는 측면과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시종일관 흥겨운 분위기가 유지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내용의 면에서 볼 때 단지 내 아내를, 아이들을 소개하며 그저 흥겨운 노래만을 불렀다는 점에선 여러가지로 아쉬운 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순서였다. 가족들이 농성중인 가족들과 파업의 의의를 공유하고 구체적으로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간단한 이야기도 하고, 생활의 어려움을 이야기 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가족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리고 노래 한가락이 농성 가족들에게 투쟁의지를 북돋아줄 수 있도록 사전준비가 다른 프로그램보다 더더욱 필요했으리라 생각된다.

2부 프로그램중 창작민요발표는 민날이라는 행사에 꼭 없어서는 안될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번의 창작민요는 바로 대중의 생활속에서 대중 스스로 쉽게 만들고 부를 수 있는 노가바였던 것이 주목되는데 "삼덕투쟁가"라는 이번 민요는 그 내용에 있어서 민날이 행해지는 공간과의

연결이나 투쟁의지를 고양시킬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현장감 있는 순서였다고 여겨진다.

지난 1년동안 지속되어왔던 민연의 사업은 창작민요를 발표하기보다는 대중보급에 역점을 둘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노가바를 이용하여 보급과 지속성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기왕에 마련된 다음 순서인 조합 합창단의 노래 발표에 연결시켜서 한번 더 발표하였더라면 민날 이후에도 이 노래가 삼덕조합의 주제가로서 언제까지나 힘차게 불리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합창은 단지 그동안 계속 불려왔던 노동가요 일변도였다는 점은 위의 효과를 연결하지 못하였을뿐 아니라 새롭고 신선한 부분을 주지 못하였던 순서였다. 전국적으로 민주노조의 투쟁열기가 엄청나게 고양되어 가고, 각 노조의 문화부 활동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민중가요의 보급은 문화부내의 노래반이나 합창단을 통해 보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선 매우 좋은 기회였던 것이다.

3부의 마당극은 민연에서도 가장 역점을 두었던 순서였다. 크게 4장면으로 구성된 이번 마당극은 파업을 하고 있는 노조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노동자들의 일상생활과 지배자들의 모습, 투쟁과정, 승리의 기쁨 등으로 그 내용이 채워졌으며, 노래, 풍물, 춤, 극이 총체적으로 동원된 형식을 갖추고 진행되었다.

이 극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우선 민연의 회원과 삼덕제지 노조원이 참가해서 함께 꾸렸다는 점과, 인물의 등·퇴장이나 내용을 이끌어내는 과정마다에 풍물과 춤 등을 연결시켜 냈다는 점이다.

회원과 노조원들은 풍물이나 극에 있어서 전문가 못지 않은 능력들이 발휘되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적으로 사고하고 적용시켜야 하는 부분일 것이다.

극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등장인물들이 회화화됨으로써 애초 의도했던 마당극을 통한 선전·선동의 효과가 삭감되었다. 특히 작업반장, 과장, 사장, 경찰로 구성된 지배자의 모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노동자들의 노조결성과 활동, 고양되고 있는 투쟁의 결기로 안절부절하며 탄압할 방법을 생각하고 지시하며 요구하는 사장의 모습이나 명령을 받는 작업반장, 과장, 경찰이나 그들의 위기로 인한 긴장감이 전혀 보이지 않고, 우스꽝스러운 장면으로 묘사되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마당극에서 묘사되는 지배자들의 모습이 주로 희극화되면서 본질이 드러나는 방법과 동일하게 표현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번 극은 애초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 생각되지만 보여진 결과는 풍자의 의미가 사라지고, 또한 노동자들의 투쟁장면과 승리의 장면이 지배자의 장면에서 고양된 적개심과 강고한 투쟁의 결과로 성취되는 가슴벅찬 감정들을 반감시키는 역작용을 하였다.

이상의 부별평가는 기능적인 면이나 방법적인 측면을 중점적으로 서술하였다.

노동자는 파업현장에서 죽을 수는 있어도 무너질 수는 없다

“

이제 전체적으로 이번 민날을 통해 배운점들을 정리하고, 문화활동가가 지양해야 할 극복점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자.

“노조 문화부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민날”

이번 민날처럼 노동현장의 지도·지원이라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경우 앞에 서술한 삼덕 노조원의 단결력 강화라는 목적을 토대로 해서 민날을 계기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노조 문화부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전형을 보여줌으로써 문화부 활동에 하나의 전망을 주어야 하는 것이 문화단체에서 행하는 문화집회의 가장 큰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삼덕 하나의 조합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89년 봄이라는 임투시기를 맞이하는 지역내 전회사 노조원들에게 임투의 당위성을 인식시키고, 그 열기를 높여 기필코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분노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가슴에 불꽃을 피워야 한다.

그러나 이번 민날을 오랜 파업으로 지치고 힘든 상태에서 전체 노조원들이 즐겁게 받아들이는 지원 프로그램으로서의 성과는 있었으나 있는 현상을 정리된 모습으로 보여주는 정도에서 그침으로써 노조 문화부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측면과 문화단체로서 가져야 하는 지도성에 있어서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았다. 즉 적들의 본질을 파헤치고 임투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이 이번 민날이 갖는 교육과 선전의 내용이었음에 전체적으로 투쟁의지가 고양되기보다는 오랜 파업기간중 쌓였던 여러가지 심정을 해소시키는 정도의 집회에 머물러 버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준비정도나 시간투여 등의 지엽적인 배려로 극복할 것이 아니고 활동가들 자신이 이 집회가 갖는 의미를 자기 사상의 무기로, 칼날로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는 철저한 자기 점검의 필요를 야기시켰다.

민연의 이번 민날을 통해 지역내 문화단체 활동가들은 관념성이 앞선 행사위주의 사업보다는 자신들의 활동이 해방전선의 무기로 사용되는 사상개조자로서의 임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대중의 요구를 철저히 깨달아 체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앞서서도 이야기했듯이 평론의 입장보다는 관객의 입장에서 공연의 결과에 초점을 맞춘 평가를 하였다. 집작하건대, 좀 더 많은 계획과 세심한 준비가 있었다면 더욱 더 나은 집회로서, 기획의도를 충분히 살리고, 이번 민날이 갖는 긍정성을 발전적으로 펼쳐 보일 수도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이번 민날이 전의 민날과 다르게 좀 더 대중의 삶의 현장에 밀착할 수 있었던 점이나 5회 민날 "시험없는 세상에..."의 긍정적인 면들을 충분히 살려 앞으로는 더욱 더 발전된 민날을 기대하며, 이상 평가를 마무리 한다.

— 민족예술연구회 —

연재

집회의 과학적 준비를 위하여

창간호에 이어서

본 난은 집회의 과학적 준비를 위해 연재되고 있는 내용중 두번째의 내용입니다.

III. 집회의 구축

민중들의 요구와 지향에 기초하여 지배 계급의 허구성과 반민중성을 알아내어 민중적 의식인 집단적의식이 확대, 강화된 내용은 서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과정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즉 이러한 내용들은 집회의 기획, 준비, 진행, 평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1) 기획

첫째, 집회를 기획할 때는 집회가 필요하다라는 의지들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물론 처음에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으로 확산되어 나갈 때 집회의 필요성은 확산될 수 있다. 이렇게 필요성을 인식한 기획단위가 있었을 때만이 집회는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의지는 실무역량이 없거나 부족한 민중들로부터 나오기도 하고 집회를 꾸릴 실무역량이 있는 곳에서부터 나오기도 한다. 집회를 꾸릴 실무역량이 있는 곳으로 이러한 의지가 확산되었을 때 집회는 꾸려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집회는 몇명의 의지만을 모아내는 것이 아니고 민중다수의 의견을 모아내는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기 위한 집회가 아니겠는가?

둘째, 민중적 집회를 기획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중들의 요구와 지향을 파악하고 민중들의 당면한 구체적 바램이 무엇이고 이것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가 하는 것을 모아내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러한 민중들의 요구는 아주 다양하다. 경제적 요구, 문화적 요구, 정치적 요구, 기타 여러 형태의 요구가 있다. 이러한 요구중 어떠한 요구에 기초한 집회를 꾸려내는가 하는 점이 바로 집회가 수 많은 민중들의 능동적 참여 속에서 진행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또한 집회전술은 구사할 때에도 민중들이 이러한 요구를 어떻게 풀어 나가고자 하는가 하는 점이 집회과정 및 이후 집회를 변화, 발전시키는 핵심적 내용이다. 즉, 민중들의 요구와 지향을 파악하는 것은 바로 집회의 내용과 형식 그리고 이후 변화를 모색하는 중점적 과제이다.

셋째, 대략적으로 파악된 민중들의 요구와 지향을 토대로 준비, 조사사업을 착수해야 한다. 이러한 조사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의견을 모아 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치적인 내용의 경우 정치적 선전, 선동을 전단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수행하고 반응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이 민중들의 요구와 지향을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내 줄 수 있을 것이고 임금 인상 시기에 있어서는 임금인상 시기에 있어서는 설문지나 직접 면담 혹은 모임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기획단위에서는 집회의 내용과 목표, 방법들을 조사, 취합된 민중의 요구

구와 지향에 의해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획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획안을 기초로 기획단위는 준비단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며, 준비단위는 집회에 내용, 목표 및 방법에 따른 제반준비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2) 준비

첫째, 준비단위

집회준비는 가능한 범위에서 집단적 참여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그럴 때만이 많은 다수의 의견과 요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수렴할 수 있으며, 이 속에서 보다 주체적이며 집단적 의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준비단위는 기획단위와 집회의 내용, 방법 등을 채울 수 있으며 목표를 달성기 위해 필요한 여러 부문역량으로 꾸려야 할 것이다.

둘째, 내용 준비를 하여야 한다.

이는 내용에 따라 직접 준비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다. 직접 할 수 없을 때는 내용을 준비할 수 있는 곳과 직접 연결을 맺어서 내용을 준비할 수 있는 곳이 준비단위에 속하는지 아니면, 지원 속에서 서로 연락을 껴할 수 있다. 만일 직접 참여가 곤란하여 지원으로 내용을 꾸리려 하는 경우 기획의도 및 내용방법과 준비된 부분과 준비되지 못한 부분들을 자세히 알려주어 전체적인 목표 달성에 지장을 초래치 않게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방법에 대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내용 및 지향, 목표에 따라 공개와 비공개, 옥내와 옥외, 야외 등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장소에 따라 준비물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된 후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집회 이후 시위와 결합시에는 더욱 더 이에 따른 준비에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므로 장소 및 방법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집회진행자에 대한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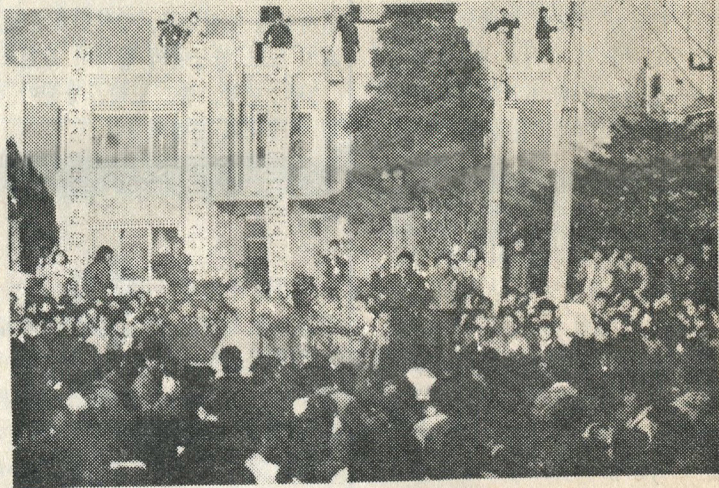
넷째, 홍보

준비단위는 집회의 구성원, 내용, 방법 등이 결정되면 집회의 구성원들에 대한 예비홍보를 실시한다. 아직 시간, 장소 등 구체적인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홍보는 할 수 없을지라도 내용에 따른 선전, 선동을 통해 문제의식과 민중집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임투시의 예를 들면 "이번에 임투전진대회를 할 예정이니 조합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 특히 이번 전진대회에서는 노래가사바꿔부르기를 통해 서로 더욱 강한 단결을 하려 하니 부서별 혹은 친목회별로 준비신청해 주시고 같이 하고자 하는 조합원들께서는 개인적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을 방송, 사내 포스터들을 통해 알려내는 것이다. 이후 내용준비가 진행중이고 장소, 시간, 방법등

이 결정되면 본격적인 홍보가 시작된다. 만일 공개대중집회라면 주 계획을 밝히고 포스터 등의 홍보를 최소 1주일 전에 행하고 집회전날, 당일날 등은 홍보전단을 통해 광범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미공개 집회형식의 토론회라면 사전에 토론할 시간을 충분히 갖을 수 있도록 내용토론 초안이 사전에 준비되어 배포되어야 하며 토론의 방식과 태도에 대한 사전교양이 있어야 할 것이며 모이는 방법, 시간, 장소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안내요원이나 전투조가 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필요와 역량에 따라 사전에 약간의 훈련 및 안내, 전투지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3) 진행

첫째, 점검

집회의 진행 최소 12시간전 준비단위는 준비점검을 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옥내집회시는 정전에 대한 대비, 옥외집회시는 우천 등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집회의 성격에 따라 반민중적 세력의 타격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전투조의 준비를 행할 때 예상되는 반민중적 세력들의 침로를 따라 배치해야 할 것이며 가급적이면 집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집회장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리에서 타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타격전이 전개될 시 집회구성원들에게 이를 알리어 주위를 환기시키며 반민중적 세력의 본모습을 폭로시켜야 할 것이며 또한 너무 위압감에 위축되지 않도록 힘찬 노래나 구호로 분위기를 돋구어야 한다.

둘째, 최종점검(30분 - 1시간 전)

진 배치, 집회 본 내용, 연단, 마이크 시설, 전단, 긴급상황에 대한 대비, 기타 부수적인 내용들을 최종점검한다. 특히 집회 진행자는 진행순서나 사이 사이 흥돋기기 구호, 선창 등의 준비를 다시 한번 하여야 한다. 노래가사 및 구호, 전단을 미리 만들어 나누어 주고 준비측과의 연락망을 안내 등을 통해 구축해야 한다.

셋째, 집회 진행

1. 흥 돋기기

노래나 구호 혹은 풍물 등을 활용한다.

집회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대중집회의 경우 너무 짧게 하지 말고 약 10~30분 정도가 적당할 것이다.

2. 진행자

진행자 소개, 진행내용 소개 및 집회에 대한 안내

3. 일반적인 순서에 따른 진행

예) 개회 선언

국민 의례

내용 보고 - 공연, 강연, 토론,

보고 결의

광고 - 이후 행동지침 포함

정리

넷째, 시위

시위를 하려는 것은 민중들의 뜻을 알리고 보다 많은 민중들과 함께 하고자하

는 목적에서 행하는 것이므로 진로를 택할 때는 많은 민중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민중들의 결집지역을 선택해야 한다. 시위로 진행될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화적인 집단시위형태로 하고 만일 타격전이었을 경우 가급적이면 선제공격을 피하고 방어적 공격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상의 타격 시에는 타격의 의미를 시위대의 모든 민중과 공유하면서 타격을 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시위 시에 전투조는 앞 열과 뒷 열에 위치하여야 하며 선동조는 시위대 곳곳에 위치하여 전체 시위대를 이끌어가고 살포, 배포조는 주변에 위치하여 전단 등을 배포 살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적과의 대치시에는 전투를 통한 정면돌파보다는 우회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다. 시위 시의 구호는 긴 구호보다는 호흡에 따를 수 있는 4박자 구호가 적당할 것이다. 또한 노래는 전 국민이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 즉, 우리의 소원은 통일, 선구자 등을 배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섯째, 정리

정리 시에는 준비측에서 나와 그 간의 진행과정을 간략히 보고하고 성과 및 반성을 민중적 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 또한 이후 계획과 행동지침에 대한 설명과 함께 투쟁구호 및 만세삼창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편집부

3호에 계속



90년대를 향한
민족극운동의 힘찬 발돋움!
제주에서 서울까지
전국 17개단체가 56일간 벌이는
순수한 민간연극제!

제2회

민족극 한마당 참가작품

극단 '큰힘'

지역문화활동을 통하여 대중과 굳건히 결합하여 민족, 민중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노력해온 안양문화운동연합 연극단 "큰 힘"에서 5월 8~10일(3일간) 동안 서울 예술극장 한마당에서 연극 "마침내 가리라"를 정기공연한다. 그간 지역내의 노조문화지원을 통해 노동자의 삶과 밀착한 문예실천을 계속해왔던 안양문화운동연합에서는 그동안 축적된 노동지원 문화역량을 바탕으로 노동자의 삶의 모습을 절실하게 형상화한 노동극을 기획하게 되었다. 이번 연극 "마침내 가리라"의 특징은,

첫째, 「이 시대 연극인들이 지향해야 할 연극양식인 리얼리즘적 창작원리에 기초한 연극이다.」

따라서, 잔재주와 막연한 풍자와 해학에 기초한 극과는 달리 살아있는 노동자의 삶, 그 자체를 체험에 근거한 연기로 표현해냄으로써 보는 이들의 가슴에 진한 감동과 이에 기초한 깊은 문제의식을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표현을 극명하게 형상화 하기 위하여 연극단의 단원들은 민족극 한마당 공연에 앞서 안양의 지역노조를 돌면서 작품 시사회를 가지고 있다

노동자의 뜨거운 삶의 체취가 끈끈히 배어 나오게 하기위하여 모든 배우들이 열심히 임투사업장을 돌며 촌극지도를 통해 노동자들과 만났다. 이러한 노력들이 이 극을 든든한 노동자의 연극으로 만들었다.

둘째, 「노래가 매우 적확히 사용되었다.」

노래는 삶과 매우 밀착한 매체로서 이러한 좋은 매체를 삶의 전형을 표현해주는 극에 사용했다. 그러나 기존의 노래극 등에서 노래는 극의 내용과 유리된 채 건도는 방식으로 사용된 예가 허다하다. 이러한 반성에 기초하여 본 연극에서는 노래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내용이 전달되도록 연극대본을 완성함과 동시에 음악연출안을 완성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임투현장에서 유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곡을 작곡한 노동작곡가 김호철씨(노동조합가, 친구야, 단결투쟁가, 등등)와 김용수씨(노동의 새벽, 저 놀부 두손에 띄우고)가 음악연출을 맡아 새로이(마침내 가리라, 공장 가는길, 불꽃이 되어 등) 여러 곡을 작곡하여 연출하였다.

[작품의도]

「큰 힘」극단의 연극 「마침내 가리라」는 한국경제의 대외 종속의 실례로 다국적 기업의 문제를 다룬 것이다.

핵심 소재가 된 모토로라 사례는 살인도 불사하는 노동탄압을 하는 기업으로서 1년에 한반도에서 뽑아가는 순이익만 해도 100억이 넘는다 모토로라 외에도 수많은 외국인 투자기업들 안에서 노조를 만들려고 투쟁을 하고있는 노동자들의 강고한 의지를 대중에게 전달하려는 것이 창작의 목적이다.

“마침내 가리라”

일시 : 5월 8, 9, 10일(3일간)

시간 : 매일 오후 4:40/7시 30분

장소 : 예술극장 한마당(신촌기차역 옆) TEL 363-7353

주최 : 전국민족극운동협의회

후원 : 한국 민족예술인 총연합



강고한 투쟁을 해나가면서 노동자들이 자각해간 반미자주 의식,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세력에 대한 분노를 정확하고도 사실적으로 담아내려고 했다.

노동대중의 불타는 투쟁의지를 작품의 진지한 내용으로 담아 그에 절맞는 형식을 고민해 봤고 현재, 전국 각지에서 들끓고 있는 진출하는 노동대중의 정치투쟁의 의미를 형상화 하는데 주력하였다. 이 작품은 철저히 대중의 검증과 지도를 거쳐 발표할 것이고 또한 대중을 선동하여 전체 변혁운동에 복무하는 공연 예술물로서의 무기가 될 것이다.

표현양식에 대하여

지역문화운동 속에서 단련된 활동가들이 만들어내는 이번 연극은 철저하게 자기 현장에서의 경험을 형상화시킨 것이다 파업농성장이나 집회에서 대중과 결합한 마당극들은 아래와 같은 양식을 축출해 내었다

첫째, 철저하게 사실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대중들은 자신들의 상황이나 사례를 설명하거나 교육목적을 갖고 풀어내는 연극에 지루함과 단조롭다는 의견제시가 많았다. 따라서 사실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펄펄 살아서 움직이며 실천하는 진짜 노동자의 뜨거운 심장의 진실을 그대로 전달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묘사와 노동대중의 삶의 대사를 찾아내는데 주력하였다.

둘째, 줄거리를 따라가는 연극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계급적 각성의 심정적 순서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

중심인물이 설정 되었지만 이 인물의 개인사를 따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이 인물이 노동계급이 각성하는 전형적인 틀에 맞춰 단단하게 걸어가도록 내용을 꾸렸다.

셋째, 내용이 요구하는 절대적인 필요에 따라 무대극적 요소를 많이 첨가하여 극적인 비장미를 극대화 하였다.

안양의 활동가들은 현장에서 노동자들과 함께하며 구사대, 백골단의 폭력을 몸서리치게 경험하였다. 이러한 제도가 뒷받침되는 폭력의 가공할 만한 공포와 참혹함을 될 수 있는 한 진실되게 전달하기 위해 형상화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였고 아직도 그 난제를 풀어줄 적합한 형식을 찾아내지는 못하였다 해결해야할 숙제를 떠안고 「큰 힘」연극단은 현장에서 대중과 결합하여 하나씩 풀어나갈 것이다. 이것은 해방을 진정으로 원하는 노동대중이 앞장서 싸워나간 것에 힘입은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 노동계급의 내용을 민족형식에 담아 노동대중의 탁월한 예술 창작물을 생산하는 실천하는 연극단이 될 것이다.

현재, 연극단 「큰 힘」은 현장순회공연을 하고 있다.

마침내 가리라



504호

감옥에서 만든 터키영화

영화 「울」 “길” 을 보고



이 영화가 주는 감동과 충격은 단지 이 영화의 특수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화 「울」의 소재가 된 터키의 현실이 우리 역사의 과거와 현재를 그대로 닮았으며 제3세계의 사회구조적 현실을 리얼하게 그려내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사회적 보편성, 즉 리얼리티가 주는 감동이 보는이의 머리속에 오랫동안 영상으로 남게 하고, 진한 감동으로 깨닫게 하는 좋은 영화이다.

우선 이 영화를 만든 감독 일마조 쿠니를 소개하면 일마조 쿠니는 터키내 소수민족인 쿠르트족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16살부터 영화와 직접적인 인연을 맺으며 많은 영화를 제작해왔으며 몇차례의 투옥·사면·재투옥을 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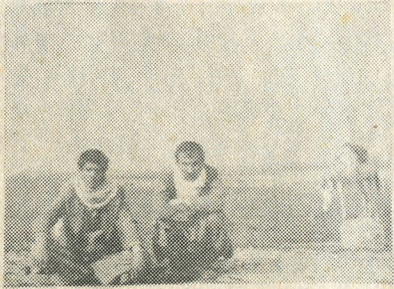
쿠니는 1980년 9월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독재정권하에서 자유를 잃고 여전히 봉건적 유제에 묶인 터키민중의 고뇌를 그린 내용의 이 영화를 81년 감옥에서 제작·감독하고 그해 10월에 필름을 갖고 탈옥하여 스위스로 망명, 터키 영화의 존재를 세계에 알리고, 터키국민의 아픔을 알리면서 35회 칸느영화제 최우수 작품상 등 몇몇 유명한 영화상을 휩쓸었다. 그리고 84년 47세의 나이로 파리에서 병사하였다.

감옥에서 어떻게 영화를 제작했을까? 감옥에서 쓴 쿠니의 각본에 따라 조감독이 촬영을 하고, 가출옥때마다 수정을 해 나갔으며 가끔씩 옥중면회로 배우와 상의해나가고 촬영된 필름을 감옥 안으로 운반하여 벽에 담요를 걸어 스크린삼아 검토되면서 제작된 것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쿠니에 대한 국민의 믿음과 사랑때문이었으며 간수들조차도 도와줄 정도였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일주일간의 가석방을 얻은 다섯명의 죄수들이 각자의 목적지를 찾아가면서 생긴 파란만장한 여행을 쫓는 형식으로 그려졌다. 광활한 터키의 땅 구석구석을 비추며 그들의 운명을 그려나가는데 짧은 화면 하나하나가 보는이의 가슴을 조이게 한다. 결혼한지 1주일만에 끌려온 유서프는 감옥에서 기르던 새를 가지고 가던중 검문에 걸리고 신분증을 분실한 이유로 다시 헌병대 감옥에 투옥된다.

세이트 알리는 국민학교도 못나온 사람으로 자신과 가족의 명예를 더럽힌 아내를 찾아 죽음의 대설원을 지나 아내를 벌하고……, 메이트는 아내와 아이들을 찾아 돌아오는 기차속에서 근친복수로 죽음을 당한다. 오메르는 시리아 국경지대인 고향마을에 도착 매일밤 계속되는 정부군과 소수 게릴라간의 참담한 전투를 겪으며 반정부군에 가입하여 산속으로 들어간다. 메브루트는 약혼녀와 만나지만 가족의 감시와 눈초수에서 흥등가를 찾아든다. 이 영화에서 그리고 있는 다섯명 죄수의 종착역은 죽거나 다시 감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로 그려지며 단 한 사람만이 한줄기의 희망(민중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결심하고 산으로 들어가는)을 찾아 나선다.

이 영화는 단순히 현실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이로 하여금 억압받는 민중들이 개인적으로는 억압의 굴레로부터 단 한발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암시적



으로 느끼게 하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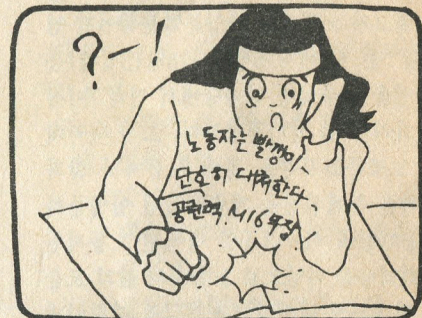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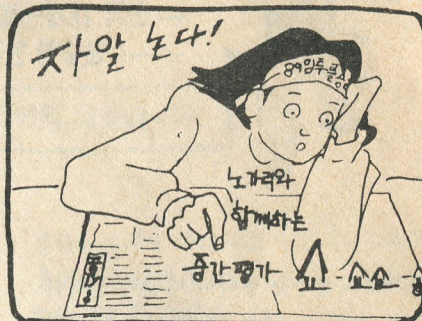
이국적인 풍습을 제외하고는 어떤 장면과 내용도 우리의 현실과 너무도 흡사하다. 도로의 요소요소를 지키는 중무장의 병사들, 반민중의 아이들(이 아이들이 즐기는 껌과 담배는 제국주의 침략을 암시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 사창가 소수민족의 절망적인 게릴라전, 검문, 통행금지 등은 군사독재의 억압과 수탈을 보여주며 극도로 감시당하는 애정의 표현, 기차 화장실에서의 정사, 이에 린치를 가하는 승객들, 명예를 더럽힌 여성을 벌하는 풍습 등, 여성의 사회경제적 자유가 속박당하고 남성의 장신구나 소지품으로 여기는 봉건적 인식의 잔재가 신음하는 터키의 여성들을 리얼하게 그려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아주 직관적으로 그리고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내용은 사회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되는 모든 억압은 깨어있는 민중들의 자주적 투쟁에 의해서만이 깨뜨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강하게 부여하고 있다.



한편, 이 영화를 보면서 아쉬웠던 점은 많은 부분이 가위질당해져 있었으며 마지막 부분의 자막이 영화의 실내용을 호도하고 있는 점이다. 이 지구상에서 제국주의와 군부독재에 눌려 신음하는 민중들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 그날이 하루빨리 오도록 참 문화예술을 꽃피우자.

회원 김성준

투사 꽃님이 제2호



세계노동절
100주년기념

한국노동자대회

억압과 고통의 지난 세월.
그러나 이제 이 땅의 참주인인 일천만 노동자와 사천만 민중은
잃어버린 우리의 권리, 빼앗긴 우리의 요구를 되찾기 위해 힘차게
앞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중의 정당한 생존권 요구에 가해지는 폭력적 탄압을 뚫고
울산에서 마산에서 창원에서 부산에서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찾아 오르는 우렁찬 함성이 벅찬 감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노동해방!!
이제 우리는 빼앗긴 노동절을 우리의 손으로 되찾기 위한 힘찬
전군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일천만 노동형제여! 사천만 민중여! 노동해방의 신명난 축제판이자 새한 감동의 현상이 될 4월 30일
서울 여의도 광장으로 총 집결합시다.
물치자! 전도원의 깃발아래, 싸우자! 억압의 자수에 맞서
생취하자! 노동삼권, 이룩하자! 노동해방.

● 본대회 : 4월 30일 오후 1시
여의도 광장

● 전야제 : 4월 29일 오후 7시
연세대학교

● 보고대회 : 5월 1일
각 공장 총회 및 지역보고 집회

● 주관 : 세계노동절 100주년 기념 한국노동자대회 위원회

● 주최 : 전국 노동법개정 및 임금인상투쟁본부 (778-2449, 774-1869)